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헌법을 '그놈' 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그놈' 이라고 하는 것이다.
- 강경근 헌법학 교수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7

2007년 7월 1일
제 256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인 諸宰馨 편집인 金珖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Issue & Words

기도로 시작한 制憲國會

7월 17일은 헌법을 제정 공포한 제헌절이다.
돌이켜보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회의 첫날,
당시 이승만 의장의 제의에 따라 기도로 시작했다.
그때 간절히 기원 했던 내용과 지금의 우리처지를
비교하면 어떨까?



• 제헌국회 개회식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느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 제헌국회 기도문 중에서 -



‘憲法精神’으로 돌아가자

한국 언론계의 원로들이 모인 大韓言論人會 매
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두 개의 화두(話頭)를
보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굳건히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모두 일어나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이 국가적 명제(命題)는 전임 대통
령들이 주창한 '신한국론'이나 동일한 표현의 정
치적 구호와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기네
정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大統)을 이은
유일한 정권이라는 독선적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는 점입니다. 김영삼(金泳三) 정권은 문민정부가
임정을 계승했다면서 '신한국론'을 제기했고, 김대
중(金大中) 정권은 아예 '국민의 정부'만이 임정
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제2의 건국론'을 외쳤습
니다. 두 정권은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6공화국, 더
나아가 바로 앞 정권의 존재마저 부인하는 배타적
정략성을 강변했던 것입니다.

에 '민족'이란 라벨을 단 온갖 문화단체들이 설치
고,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소
득 2만달러 시대를 구가한다고 떠들면서도 여전히
결식 아동이 존재하고 먹는 것까지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요?

나는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이야말로 당시로
서는 최상의 이상을 담은 훌륭한 법전(法典)으로
평가합니다. '제1의 건국'은 이처럼 민주적이고 양
양한 조국의 장래를 약속한 숭고한 시작이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역대 권력이 법전의 갈피마다 칼을
대고 헌법을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해 우리 헌
법은 '누더기 헌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
복(制服)의 쿠데타도 무섭지만, 평복과 민주로 가
장한 친북좌파 세력의 '헌법 짓밟기와 나라 거덜
내기'가 더 경악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뼈저리게 체
험해 왔습니다.

오늘 내가 새삼스럽게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국민에게 드리는 두 가지 話頭

‘法 지키기’로 ‘제2의 건국’을



李 哲 承

· 대한민국 憲政會長

그러나 내가 제의하는 '제2의 건국'은 좀 더 넓
은 역사인식의 지평(地平)을 갖고 있습니다. 임정
은 물론 이승만(李承晩) 정권을 시작으로 한 대한
민국의 헌정사(憲政史) 전체를 '조국의 현대사'로
수용하되, 고비마다 얼룩진 역사의 상흔(傷痕)을
거울삼아 이제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자는 호소입니다. 이는 역사의 기승전결(起
承轉結) 원칙에도 부합되며 역사발전의 필연성에
도 합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2건국'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정치선진화입니다.

정치선진화는 경제, 사회, 문화의 뒷받침이 있어
야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
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국가운영 때문입니다. 잘못
된 이념이 통치구조를 지배하고 법과 행정, 국민의
식이 제각기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지키기'를 제2의 화두로 던집니다. 또 문화적
측면의 한 예를 보자면 한류(韓流)스타를 만들어
낸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로 약진하고 있는 마당

제언하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대
통령이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싸움만 부추기는가
하면 한 때 집권 여당으로 행세하던 정당 사람들
은 책임정치를 내동댕이 친 채 사분오열(四分五
裂) 갈라져 쑥덕대고, 차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다
는 야당 사람들은 당내 경쟁에 몰두하느라 골병
든 나라 구하기는 제쳐 둔 채 마치 '탈런트' 정치
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나의 제언은 곧 대
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한국민의 도덕적 우월성과
인류보편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는 요구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지금의 헌법이 지고지선(至高至善)한 내용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각제(內閣
制)로의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적 부분도 적지 않음을 인정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국민이 지켜할
규범으로서의 법전은 현행 헌법이 유일하며 그 개
정작업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고치
면 될 것입니다.

· 3면에 계속 →

본회 '30年史' 출판 SBS문화재단 협찬

諸회장 요청에 5천만원 지원

SBS문화재단이 '大韓言論人會' 30년사' 출판 협찬
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했다.

제재형 본회 회장은 지난 3월 윤세영 SBS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본회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 중
인 '대한언론인회 30년사' 발행 비용 찬조를 특별히 요
청했다. 이에 윤세영 이사장은 대한언론인회가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으로 퇴직 언론인들의 친목과 후생복
지 뿐만 아니라 언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30년사' 출판비용을 SBS문화재단을 통해 5월 10
일자로 협찬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30년사' 출판예산 확보에 따라 본회는 제
작 일정에 차질 없이 11월 말까지 '30년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본회 총회원 500명으로 늘어나

본회 제112차 이사회가 6월 25일 오전 11시 본회 회
의실에서 제재형 회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년사' 제작을 위한 예산확보
(SBS 문화재단 5천만원 협찬)의 건과 입회 신청자 7명
입회 승인건(명단 4면) 그리고 올가을 제18회 대토론회
일정 등을 의결했다.

본회는 이번에 새로 회원 7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총회원수는 500명으로 늘어나 500명선에 진입했다.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Issue & Column

③

· 기사실 '대못질' 누구를 위해?



Mountain & Tracking

⑤

· 30년 만에 다시 오른
에베레스트

Members Column

⑦

· 외래어 통일한 '언론
인의 힘'

Golf & Cinema

⑧~⑨

· 언론계의 골프 꾸러기들 - 매스컴을
· 영화탐험 - 자전거 도둑

History & He-story

⑪

· 방송기자의 월남전 중군

Members Company

⑬

· 관직없는 '민간 외교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 균형있는 지역발전
- ▶ 역동적인 산업경제
- ▶ 함께하는 복지사회
- ▶ 건강한 자연환경
- ▶ 활력있는 농·어촌

※「溫故知新」은 이번호에 쉽니다.



기자실 '대못질' 누구를 위해?

언론이 드라큘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인식은 섬뜩할 정도다.

마침내 언론을 드라큘라(흡혈귀)쯤으로 생각하는 소름돋을 표현이 그의 입에서 서슴지 않고 튀어나왔다. “다음 정권에 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서 넘겨주려고 한다”고. 지난 6월 8일 원



池龍雨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광대에서 행한 특강에서 한 말이다.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지겨운 흡혈귀의 심장에다 마침내 말뚝을 박고 관 뚜껑에 못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대못질을 해서 넘겨준다 는 말을 하는 순간 노 대통령 자신도 그 영화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을 법하다. 아무리 언론과 사이가 나쁘기로써니 대통령이 언론을 것처럼 사갈시(蛇蝎視)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기야 그는 해양수산부장관시절에 이미 언론과 전쟁을 불사할 정치인들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통령에 취임하기 무섭게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했을 정도다.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3월엔 신문가판 구독을 금지시켰고, 이어서 출입기자단 폐지하고, 기자들의 각 부처 출입도 막았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언론계 전반에 재갈을 물린 ‘신문법’이란 악법까지 제정했다. 노 대통령은 언

론, 특히 비판지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 못할 원한이라도 있어서 한풀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숙명의 정치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가 좀더 현명한 지도자라면 언론과의 그런 적대적인 자세가 자신에게 백해(百害)할지언정 결코 무익(無益)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작년 9월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인 언론관과 핀란드 대통령의 긍정적 언론관이 맞부딪쳐서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서도 노 대통령은 언론이 국가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불만을 터뜨린 반면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는 언론의 힘이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요소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언론은 뿔래야 뿔 수 없는 불가근(近)불가원(遠)의 관계다. 감시자인 언론이 없으면 정치권력은 썩게 되어있으니 언론과 정부 사이는 결코 적대세력이 아니라 ‘악어와 악어새 처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상생의 이치를 노무현 대통령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언론과 휴전해야 한다. “언론을 막으려고 감옥에 가두니 감옥에다 알을 까고 나온다”고 했던 함석헌翁의 아포리즘이 새삼 되새겨지는 요즘이다. [7]

언론도 '관행' 벗어나야

어쩌다가 언론과 정부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깝다. 도전자는 정부임이 분명하나 언론은 과연 허물이 없으며 정부와 정면 승부에 자신만만 한가 물어보고 싶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종합 브리핑실이나 전자 브리핑 시스템이 현재보다 언론의 정상화 또



盧相國

· 본회 사이버위원장
· 오라뉴스 대표

는 선진화 방안이라는 논리가 억지라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일반이 더 잘 알고 있다. 적대적인 조치를 강구하면서 언론 선진화 방안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 그것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 언론인으로 살아온 필자로서는 정부가 선진화 방안이라고 말하며 기자실을 폐쇄하는 조치를 여야 대통령후보 예정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 조치를 밀어붙이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 배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속셈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단순히 언론 탄압이니, 노정부의 반언론적인 체질이니 하고 통상적인 논리로 응대할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빌미를 언론의 관성과 타성에 서 찾을 수 있다.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언론의 기본 사명과 관계가 있다. 공기며 목탁이라는 언론의 일차

감시대상은 정부이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못하는 것은 비난한다. 더욱이 정직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가는 것을 바로 잡아가려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애

기는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정부와 언론의 대치 관계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세계적인 문제와 다른 문제점을 갖고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이 특히 보수 거대신문들이 정부가 하는일 모든 것을 왜곡 보도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납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도문만 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접촉 공무원은 공범이다. 승낙을 받고 접촉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조치의 속 마음이다.

은폐된 부정을 취재하기위해 취재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정부의 처사는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정부가 하는일을 알리는 언론에 브리핑으로 하거나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것으로 언론을 획일화 하려는 의도는 철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이 기회에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존경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 나기를 다짐해야 한다. [8]

院 1면에서 계속

‘憲法精神’으로 돌아가자

나는 스스로 ‘건국연대의 막내 인 동시에 ‘민주화 시대의 만형 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던 해방정국에서 반탁(反託)운동의 승리로 우리나라 건국에 초석을 깔았다는 긍지도 지녔습니다.

내가 처음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1954년 제3대 국회였습니다. 5·16후 정정법(政淨法)에 묶여 해외 망명생활을 강제 당한 정치 공백기를 빼고도 7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제 미수(米壽·88세)를 코앞에 둔 나는 오로지 건국의 숭고한 이념과 정신을 살려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뿐입니다.

내가 던진 두 개의 화두는 동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인과(因果)의 한 묶음으로 ‘새 대한민국 만들기 의 강령인 셈입니다. 올해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고난의 장(章)을 마감하고 대한민국의 양양한 앞길을 담보할 절체절명의 선택을 해야 할 해입니다. 오는 12월 19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려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제2의 대한민국 만들기 와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자 는 범국민 캠페인에 흔쾌히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9]

호암재단광고

신입 회우 상견례



최근 새로 입회한 회우들 상견례 모임이 6월 19일 낮 12시 서울 무교동 부민옥에서 열렸다.

회장단 등 집행부가 자리를 같이 한 이날 모임에서 제재형 회장은 본회 활동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신입 회우들의 본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줬다.

이날 모임에 김병무, 김승웅, 김진기, 김종열, 도준호, 문준호, 심의표, 이대영, 이규섭, 전용호, 현소환 회우 등 신입회우 11명이 참석했다.



부 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이광호(李光鎬) 원로회우가 6월 16일 오후 5시 중앙대 용산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7세.

본회의 최고령자인 이 회우는 1911년생으로 함북 경성일보(鏡城日報)와 조선상공신문 기자로 언론에 종사하다가 국제문화평화촉진재단 명예총재, 대한체육회 고문, 조양산업(주)회장 등을 역임했다.



· 오양동(吳陽東) 회우가 6월 12일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87세. 이 회우는 서울신문 지방부장, 매일경제 사회부장,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 이종호(李鍾鎬) 회우가 6월 12일 서울대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79세. 이 회우는 시사통신에서 25년을 근무했으며 경제부장을 지냈다. (조사 12면)

♣ 주소 바뀌었습니다

· 박진서(朴晉緒)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8 탑마을 주공8단지A. 806동 904호 전화 : 031-707-2318

· 유창순(柳昌淳) 회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 쌍용A. 205동 903호 전화 : 031-457-4967

· 임응식(林應植)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 1동 반도보라빌 101동 102호 전화 : 031-898-0790

· 신동호(申東鎬)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신정마을 성지A. 506동 1204호 전화 : 031-261-1867

산악회 소식

관악산으로 초대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조창화)는 7월 산행으로 오는 27일 국내 최고 아름다운 숲길 7km 관악산(머너미고개)을 등반한다.

회원여러분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 7월 27일(금)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서울대 정문 앞
- 연락처 : 총무 011-443-0063
- ※산행 뒤 간단한 중식

■ 회비 내신 회우

· 2007년분
고덕환 김병모 박동은(06년 포함)
안평선 양성목 이광영 유선우
김성배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본 회 日誌 (6월)

- 5일=편집회의
- 18일=전 필진 간담회
- 19일=자격 심사위원회
- 25일=제112차 이사회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가나다 순



· 김광섭(金光燮) 회우
43년생. 1968년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생활과학부장, 부국장, 삼성SDI홍보이사, 고대 언론학부 강사(현) ·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31 LG빌리지 6차A. 614동 1902호 ☎ 016-322-5677



· 김철(金哲) 회우
45년생. 대한일보 정치부 기자,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 조선일보 북한부장. 국제부장, 15대 국회의원, 현 양평골프장 사장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2동 72-6 운산빌리지 503호 ☎ 011-312-9797



· 남치호(南致浩) 회우
36년생. 시사통신 기자, 한국경제신문 기자, 매일경제 정치부기자, 부산일보 경제부장 · 주소: 전남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1408-3 ☎ 017-258-4431



· 박권흠(朴權欽) 회우
32년생. 합동통신 기자, 민주신보 취재부장, 국제신문 정치부장,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11. 12대 국회의원, 대구일보 사장, 2004년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 주소: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A. 108동 701호 ☎ 011-248-3538



· 서진섭(徐鎭燮) 회우
33년생. 동아일보 수원주재 기자, 자유신문 기자, 대한상공일보 편집부 차장, 산업경제신문 지방부 차장, 한수조경 대표, 한미동맹친선회 회장(현) · 주소: 서울 도봉구 창5동 주공A. 102동 1502호 ☎ 011-366-1157



· 정병수(鄭秉秀) 회우
40년생. MBC 기자, 경제부장, 해설위원, 여수 MBC 사장, 한국마사회 감사. · 주소: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대우A. 104동 903호 ☎ 010-7750-2049



· 한건주(韓建柱) 회우
37년생. 코리아타임스 경제부장, 편집국장, 사장. · 주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도담마을 프리에체A. 703동 1001호 ☎ 019-256-3136



함께 할수록 커지는 행복

편하고 깨끗해진 환경에, 새 것처럼 고쳐진 나무와 손잡이들,
그 것 보다 더 행복한 이유~
아이들처럼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선하고 맑은 눈,
그리고 힘이 닿는 만큼의 사랑을 펼치는 손,
오래 오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남동발전기금봉사단

함께하는 사랑 · 따뜻한 사회



남동발전기금봉사단은 공·전력 12개 지회 12개 봉사실로 구성된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회사직원들의 지원으로
봉납부 지원, 지역복지, 재난구호 등 나눔과 봉사의 사회문화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마지막 막영지 고락셀에서 바라본 로체봉과 에베레스트(뒤편). 푸른 하늘을 이고 설산과 돌산의 흑백콘트라스트가 조화를 이룬다.

30년 만에 다시 오른 에베레스트

金云瑩 · 李台永 회우 깊은 감회 속 불굴의 트래킹

· 기쁨 반, 근심 반으로 페리제를 떠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향하는 대한언론인회 두 회우, 오른쪽이 김운영(金云瑩), 왼쪽이 이태영(李台永)회우.

그 시 절옛길을따라...

· 사진 김운영 · 글 이태영

사람은 누구나 보다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어쩌면 하늘에 좀더 가까이 가고 싶은 희구(希求), 또는 높고 깊은 산 속의 영혼을 감촉하고 싶은, 그래서 특별한 축복이라도 받고 싶은 꿈을 갖고 있을

터이다.

어느 철인이 ‘외롭거든 산에 가라’고 일렀으되 고산준령을 헤매는 건 바로 삶의 외로움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방향은 아니라 해도 대자연에 침잠하여 위안을 받고 그 활기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믿고 싶다.

꼭 최고봉이 최고선의 정점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줄지어 에베레스트를 찾아 나선다. 프레 몬순, 포스트 몬순 가릴 것 없이 50여개 팀, 수백명의 전문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쿨부 빙하를 거쳐 사가르마타(에베레스트의 नेपाल 이름)를 찾는다. 원정대가 아닌 일반 트래커는 그 수를 헤아릴 길이 없다.

한국인(고상돈)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른지 30년-이를 기념하여 한국일보가 다시 당시 대원들로 순례단을 구성하여 지난 4월 초 ‘1977 영광의 길’을 따라 나섰다.

오랜 세월이 흘러 체력은 쇠약했지만 불굴의 도전정신은 여전하다. 여기에 대원의 하나였던 한국일보의 두 기자(당시 사진부장 김운영, 체육부 차장 이태영)가 동행, 알피니스트와 저널리스트의 투혼이 일맥상통함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2일 카트만두를 출발, 루크라 비행장을 거쳐 베이스캠프 앞 칼라파타 봉(5545m)에 진출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8일. ‘히말라야의 보석’이라는 칼라파타에서 바라보는 에베레스트 정상모습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류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바뀌었다.

바닥은 향량한 돌밭과 빙하지대. 그 위로 ‘천지창조의 신비’를 말해주듯 ‘눈의 성모’ 사가르마타와 로체봉이 솟아 있다. 30년 전에 그러했듯이 이곳에서 기도를 바친다. “하늘이시여. 분열과 대립에 지쳐버린 한국인을 용서하시며 내일을 축복하십시오.”

에베레스트는 장엄한 모습, 무거운 침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다. 백두산으로부터 저 바다 끝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소란스러운 땅, 열 받친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



· 상보체 에베레스트 뷰 호텔 앞(3,900m). 수많은 트래커들이 줄지어 간다. 이곳에서부터 호흡장애 등 고소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문시평

그렇다고 언론은 잘했나?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언론 간의 논쟁이 막 시작될 무렵, 어느 자리에서 한 친구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며 물었다. 발이 넓어 주변에 알고 지내는 전·현직 언론인이 많고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다 아는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언론계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완곡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노대통령 언행과 열린우리당 등 그 지지세력에 오래 전에 질려버린 그가 굳이 그렇게 묻는 의도는 뻔했다. 그 쪽은 이미 포기했으니 애기 하고 말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언론은 뭐 잘한 거 있느냐는 사실상의 비아냥이었다. 전직 공무원인 다른 친구는 기사를 자주 접촉해야 했던 현직 때 기억을 되살리며 이런 식으로 묻고 따지는 것도 부질없는 식이라는 투였다.

다른 모임에서 친구들 역시 정부 편에서 ‘기자실 폐쇄’를 주도하는 전직언론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현직언론인들이 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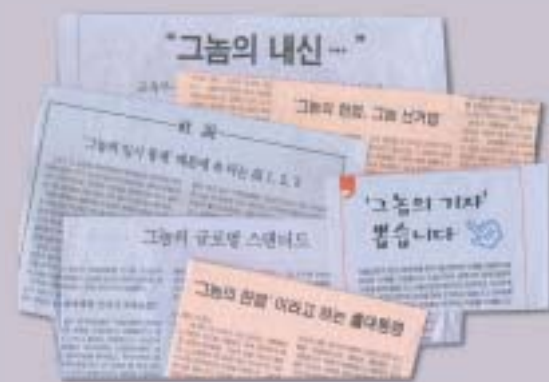
자와 언론사 비리가 드러나면 ‘뼈를 깎는 자정 선언’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이 슬그머니 지나갔다. 이래가지고는 국민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둬서 나라 살림을 하는데 그 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만일을 위해 감시하는 언론기능을 축소시키려는 노정권의 행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기꺼이 감시 받아야 할 대상이 감시기능을 자기 입맛대로 조절하겠다는 본말전도는 거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궁색하나마 이렇게 대답했다. 경찰 일부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경찰활동을 제한하거나 없애지 못하고, 국회

◆ 요즘 신문엔...

‘그놈의...’신드롬



요즘 ‘그 놈의...’ 담론으로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품위 잃은 저속한 화법 ‘그놈의 헌법’을 빗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좋은 표현이라고 마구 끌어다 쓰고 있으니,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M)

서로 ‘알 권리’ 내세워 안하느니 못한 ‘맛장 토론’ 국민을 더욱 헛갈리게

들이 보기에는 피장파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막말로 처지가 바뀌면 사람만 다르지 오가는 주장은 같을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전·현직을 막론한 언론인과 언론계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었다.

자유당정권 시절은 물론 1964년 언론파동, 74년 언론자유수호운동 등 과거 여러 차례 겪었던 언론 수난기에 보여줬던 국민들의 지지 및 열기와는 사뭇 달랐다. 주변 몇사람 반응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상 이상으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말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권력과 금력에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강한 비윤리적이고 반 도덕적인 일부 언론인들을 사회가 매우 깊이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정권은 바로 이런 점을 꿰뚫고 포문을 연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부처 기자단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려다 그만 둔 사실 등 몇가지 권언유착 사례를 청와대가 폭로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별로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기

의원 몇이 본분을 훼손했다고 해서 선거방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듯이 언론도 직업윤리를 어긴 일부 때문에 그 기능까지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이 같은 교과서적 말을 듣고 언론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신문은 반성하는 태도와 사과하는 자세로 이런 국민들의 이해를 꾸준히 구하면서 노정권의 처사가 왜 부당한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세를 취한지 한 달이 넘도록 그 점이 미흡해 아쉽다. 게다가 ‘맛장 토론’이란 것이 안하느니 만 못한 것으로 끝나 국민을 더욱 헛갈리게 만들고 말았다. [M]



朴 連 浩

· 본회 회우
· 국민일보
전 논설위원

방송시평

TV화면은 곧 교사인데...

한동안 유행했던 광고문구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를 지켜본 한 초등학생이 침대를 과학이라고 답안지에 썼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다. TV화면이 얼마나 영향력있는 교사인가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다.

그중에서도 요즈음 부쩍 늘어난 먹거리방송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사오십년 전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연출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지상파 3사가 경쟁하듯 한달이면 몇번씩 내는 낚싯배 리포트가 있다. 아리따운 여자 리포터가 똑딱선에 승선해 늙수구레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절경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로 나온 깔끔한 음식이며 일회용 식기 등과는 대조적이었다.

지난 6월 13일 SBS의 생방송 투데이의 먹거리소개는 손가락음식의 퍼레이드 같았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열무국수집을 소개하면서 지나친 주방의 조리 과정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흔한 비닐장갑도 안 낀 채 주모가 맨손으로 열무김치와 국수를 버무려 손가락으로 그릇에 담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궁이 안되는 대목이다. 사회자도 연방 손가락으로 간을 보며 국수를 버무리는 주모가 민망스러웠던지 “저렇게 손으로 버무리면 어머니의 맛이 살아나겠조”라고 구차한 멘트를 했다.

그 다음 코너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26년이나 되었다는 돼지구이집이 소개되었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맨손으로 처리되는 곳이다. 모든과정이 60세가 넘는 듯한 주모의 맨손으로 이루어진다. 고기를 양념하는 것도 맨손으로 하고 석쇠에 굽는 것도 맨손이다. 다 익은 고기는 손가락으로 접시에 담아 손님한테 내놓는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손님들의 인터뷰는 더욱 걸

부쩍 늘어난 먹거리 코너 ‘맨손 음식’ 자랑할건가? 위생에 너무 무감각

작이다. “저 아주머니의 손에서 맛이 나오는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맨손으로 주물렀기 때문에 맛이 생기는 것일까.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음식에 길들여진 식구들이 어머니의 맛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백만명이 지켜보는 TV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맨손 맛이 확대, 강조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를 보고 우리의 맛이 손가락 맛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는 않을까.

만약 외국인들이 이런 프로를 보고 한국음식은 맨손으로 만들고 맨손으로 집어 먹는다고 치부한들 무슨 변명을 할수있겠는가? 선진국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결, 정리정돈 그리고 알미울 정도의 세련미가 아닐까? [M]



趙 昌 化

· 본회 회우
· KBS
전 기획조정실장

훌륭하다. 그리고는 늙은 선장이 잡아올린 우럭같은 생선을 때가 껴죄하게 낀 도마에 올려놓고 몽당칼로 저민 다음 시커먼 손가락으로 살점을 집어 초고추장에 푹 찍어 여자 리포터의 입에 구겨넣어 주면 리포터는 맛있게 씹어 넘기고 이번엔 자신의 손가락으로 살점을 집어 초고추장에 찍어 입에넣고 손가락을 쪽쪽빠는 장면을 경험했을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바다에서 회는 손가락으로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난 5월30일 KBS1의 6시 내고향에서도 손가락은 유감없이 동원되었다. 아카시아 벌꿀 농사를 소개하던 중 여자리포터는 벌꿀을 채집하는 커다란 통에 거침없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꿀을 듬뿍 찍어 입에 넣고는 계속 손가락을 빨아 대는 것이다.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은 꿀통에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꿀--상품으로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 오히려 그다음 코너에 등장한 송대관씨의 모내기 장면 중 새참으

그 시절
추억

외래어 통일한 ‘언론인의 힘’

1985년 12월 28일, ‘문교부 고시 제 85-11호’가 공포됐다. 그 가장 큰 보람이 “교과서 외래말 적기에서 긴소리를 적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언론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그 속내를 알아 보자.

문교부 사회과 인명·지명 심의회가 1963년 4월 22~25일에 편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1965년도 새 교과서 개편 준비 작업의 하나다. 심의위원은 국어·역사·지리 원로 교수들 20, 편서관 4, 청풍자씨 등 25사람.

청풍자는 1947년부터의 호남신문 교정부장 출신으로, 그 때에는 경향신문에 있던 언론인이다. 1956년부터 5년간 한글학회 사전 편찬, 1958년부터 교과서 교정을 보아 오는 문교부 통이다.

나흘 동안 회의에서, ‘랜드·랜드·런드’를 ‘란드’로 통일, ‘알젠친’을 ‘아르헨티나’로 하는 등 수백가지를 심의했다.

첫날부터 ‘베에토오벤’으로 적는 긴소리 적기는 언론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된다고 청풍자가 거수표결을 막아, 마지막날 마지막 의제가 되었다.

다급해진 편서관들이 “국어심의위원회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자, 원로 교수들이 “무슨 소리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나흘 회의는 무효다”라고 선언했다.

편서관들이 ‘말 실수’라고 사과하고 표결했는데, ‘21대 4’로 긴소리 안



정재도

· 본회 회우
· 한말글연구회 회장
· 전 소년조선 주간

“
‘노오트’를 ‘노트’로
‘외래어 긴소리’안적기
언론인들 주장 빛 봐
”

적기 안이 통과됐다. ‘베토벤’으로 적기로 된 것이다. 문교부로서는 될 말이 아니었다.

그 해 9월에 지난날 심의위원회까지 40여 명이 모인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편서관들이 청풍자에게 ‘베에토벤’으로 절충하자고 했다.

분위기가 4월 회의가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문교부 체면도 있고 해서 절충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1965년에 조선일보사 소년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긴 청풍자가 1968년에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되었다.

1970년에 7개 연구 단체로 짜인

‘국어조사연구위원회’(국조위)가 발족했다. 청풍자는 국어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자동 참여했다.

1972년에 한국일보 박갑천 교정부장을 국어심의위원회에 천거하여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건호 편집인협회장이 청풍자에게 ‘긴소리 안 적기’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어서 추천한 서울신문 박용규씨를 비롯, 언론계 여러 교정부장들이 ‘국조위’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1979년에 발표된 ‘국조위’의 ‘외래말 적기 시안’에서 ‘노오트’를 ‘노트’로 적고, 긴소리 적기를 없애는 등 개정안이 ‘문교부 고시 제85-11호’였다. ‘뉴우요오크’를 ‘뉴욕’으로 적게 됐다.

이로써 교과서 외래말 긴소리 적기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언론계에서 양보하여 천하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뒤 자연스럽게 정부와 국어원에 서도 언론계 교열부장들을 국어심의위원회 참여시켜, 2007년 3월 7일 현재로 ‘제74차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심의결정안’이 나왔다.

또 있다. 1950년대까지 한글학회 ‘외국’과 국어국문학회 ‘외국’을 청풍자가 ‘왜국’으로, 20여 년간 싸워서 1982년에 통일한 것도 언론계를 업고 한 것이다.

새삼 ‘언론인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한다. [필자]

새로나온책

<취재 외길 오십 년>

-김한길 지음-

<취재 외길 오십 년-거지에서 대통령까지>(뉴스매거진)는 저자가 26세에 언론에 첫발을 디딘 후 2007년 2월로 꼭 50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취재현장에서 체험한 갖가지 내용들을 간추린 자전 초(自傳抄)이다. 기자수첩 속에서 골라낸 뜻있고 희한한 인생 다큐멘터리, 희로애락, 흥망성쇠를 보여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드라마다.

모두 5장 90여 개 항목 400여 쪽 분량으로 된 사연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상황들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듯이 썼다. 첫째 장은 ‘영도다리 생명의 파수꾼’,



서류 홈쳐 공무원 부정사건 특종, 장 면이가 잡혀갔대요, 나는 공갈 기자입니다 등이며 둘째 장은 첫 귀향한 박정희 대통령, YS. DJ인 터뷰, 귀향 때마다 쓴 소리 이효상 국회의장, 국회 회기 중 구속 1호 유성환 의원, 썩은 냄새 안나니 똥파리도 안 오네, 이 기사 나가면 내 옷 벗는다 등이다.

셋째 장은 李, 全, 盧 대통령과 나, 새마을 사업 그 현장엔 ‘풍요’가 주렁주렁, 조형주의 미술 창시자 김홍수 화백, 수물위기 은행나무 구출작전, 장학금주는 소나무 ‘석송령’, 전국 처음 기사실 폐쇄한 김두관 남해군수 등이다. 넷째 장은 세계는 넓다, 다섯째 장은 ‘추억의 글 숨쉬는 글’로 데스크 칼럼, 시론, 사설 등으로 되어있다.



재미마당

“쌍년은 처음이오”

一笑一少
一怒一老

옛날 한 왕자가 부왕의 갑작스런 승하로 18세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궁전 뜰을 거니는데 곁에 섰던 궁녀가 연못에 핀 연꽃을 가리키더랍니다.

폐하 저 연꽃 좀 보십시오. 한 꽃대에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 말에 임금님이 연꽃을 보시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짐이(지미) 18년에 저런 雙蓮(쌍년)은 처음이오.”

和音

하나하나의음이 잘 어울릴 때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듯이,
각 도시들이 고르게 발전할 때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됩니다.



Trust Builder Land Designer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경쟁력 있는 나라 만들기, 혁신도시로 이루어 나갑니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산·학·연·관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입니다.
· 혁신도시는 주거, 교육, 문화 등 수준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입니다.
·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도시입니다.



최영정

언론계의 골프 뿌리기들



(中) 신문협회, 매스컴會 바람넣어

· 필자 : 골프칼럼니스트 · 전 조선일보 체육부장

최초 언론인 골프모임 '7월회'

언론계 전반의 골프붐은 신문발행인의 골프모임으로 선도되었다. 1970~1980년 초 그들의 골프모임은 활발했으며 주로 신문협회 회장단이 그 주도를 맡았다. 서울 김종규(金鍾圭), 조선 방우영, 광주 김남중(金南中), 중앙 홍진기 4인 콤비에 이어 서울 문태갑(文胎甲), 조선 방우영, 대구매일 전달출(全達出), 합동 박용곤 회장단 콤비는 매월 정례 이사회 전후의 신문발행인 골프모임에 앞장 섰다.

동아 김상만(金相萬)사장은 1964년 당시 서울CC 멤버였지만 신문협회 골프모임에 늘 불참했으며 이동욱(李東旭), 김상기(金相琪)사장은 참가해 라운드를 즐겼다.

골프스म्म에서는 합동 박용곤, 현경 김동립(金東立), 조선 방우영, 광주 김남중, 대전 남재두(南在斗)의 순이었다.

김종규 회장 취임기념 제1회 언론인대회에 참가한 발행인이 적어낸 핸디캡을 보면 김남중 10. 방우영, 김동립 11. 홍진기 20. 국제 하종배(河鍾培) 17. 강원 손계천(孫繼天), 김종규 각 25명이다. 한편 발행인 이외 참가자의 핸디캡은 조선 유건호(柳建浩) 23. 김용원(金容元) 6. 최영정 12. 중앙 김인호(金寅昊) 24. 김동익(金東益) 28. 이종기(李鍾基) 22. 경향 정남(鄭男), 오전식(吳田植) 각 28. 신아 유승택(柳承澤) 26. 정도현(鄭道賢) 28. 홍진태(洪鎭泰) 18명 등 대다수가 90~100대의 스코어였고 80~90대는 고작 4~5명 선이었다.

‘골프망국론’의 논객 최석채(崔錫采)씨가 골프로 입문하면서 신문계의 화제로 등장되던 때이다. 마침내 언론계 최초의 골프단체까지 출범하게 된다.

1970년 7월, 재경 신문 통신 및 방송사의 골프동호자들이 모여 가칭 ‘칠월회(七月會)’라는 이름의 골프회를 결성했다. 매일경제 나병하(羅炳廈) 편집부국장, 문화방송 임택근(任宅根) 상무, 우윤근(禹潤根) 상무, 중앙통신 김노석(金路石) 사회부 차장, 노철용(盧哲容) 정치부 차장, 합동 민병준(閔丙駿) 총무국장, 유승범(柳承範) 정치부장, 서울 유한열(柳漢烈) 정치부장, 조선 유건호 전무, 최영정(崔永定) 체육부장 그리고 국제골프 안승근(安承根) 기획실장 등 19명으로 우리 매스컴 사상 첫 언론인 골프 친목단체가 탄생하고 회장으로 MBC 임택근씨를 뽑았다.

72년부터 회원 늘기 시작

회칙에서 회원은 서울 본사 언론사 1사(社) 5명 이내씩, 전화원 수 40명으로 제한하고 명칭도 ‘매스컴회’로 굳혔다. 따로 특별회원도 두기로 해 강신호(姜信浩) 동아제약 전무, 윤화열(尹和烈) 동화약품 사장, 홍성언(洪性彦) 럭키화학 전무, 이종근



▲ ‘조선 회장 방우영 골프협회장(오른쪽)이 ‘코오롱’ 명예회장 이동찬 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받고 있다.



· 매경오픈 창설의 나병하 전 매경사장. 그는 매스컴회 창설자이기도 하다.



▲ 신문협회 월례골프모임. 왼쪽부터 매경 나병하, 서울 문태갑, 경향 정구호, 조선 방우영, 부산 권오현, 한경 이규형, 중앙 이종기, KH 한중우 및 필자(사무국장).

‘골프 망국론’의 崔錫采 골프 입문

70년 7월 처음 언론인 골프회 탄생

갈수록 열기... 40명 제한 규정 깨져

(李鍾根) 종근당 사장, 정세영(鄭世永) 현대자동차 사장, 서성환(徐成煥) 태평양화학 사장, 조권순 유한양행 사장, 허창성(許昌成) 삼립식품 사장, 김영식(金永植) 삼양식품 사장 등이 참여했다.

바로 그날 창립경기를 한양CC에서 열고 MBC 우윤근, 중앙 김노석이 각각 우승해 시상했다. 합동 홍일해(洪一海)국장이 이해에 두번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1972년부터 매스컴회 식구가 차차 불어나기 시작했다. 대한 정대영(鄭大永) 부국장. 신아 윤임술(尹壬述)주간, 박환수(朴煥秀)부장, 조선 목사균(睦四均)업무국장, 중앙 박무승(朴武昇)상무, 김인호(金寅昊)편집국장, 매일경제 김태운(金泰運)사회부장, 현대(한국)경제 현경득(玄慶得)부국장, 이근수(李根

洙)경제부장, 중앙방송 최덕수(崔德洙)업무국장, 봉두완(奉斗琬)해설위원 그리고 KBS 박종세 위원 등이 대거 가입했다.

중앙 추세환(秋世煥)경제부장, 합동 정용현(鄭龍紘)부국장, 이덕규(李德圭)경제부장, 정극주 차장이 한국 이용일(李容一)편집인과 함께 들어왔다.

월례모임도 활성화 돼 1972년 6회가, 1973년에는 12회로 배가 되었다. 이 해에 중앙 이승보(李承輔)상무가 조선 김용원(金容元)경제부장, 내외경제 송두빈(宋斗彬)부장 등 경제부처출입기자의 골프모임인 경원회(經原會) 멤버들을 이끌고 매스컴회에 집단 가입함으로써 매스컴 골프모임이 단일화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승보씨를 부회장으로 대우한 것은 평가자때 이미 골프를 했던 그는 기자 사회에 댄스와 포커에 이어 골프를 퍼뜨리고 전염시킨 ‘잡기(?)’의 선구자라는 관록을 인정해서였다.

경원회의 대표적 고수(高手)인 조선 김용원은 핸디캡 6으로 한양, 뉴코리아CC의 대표선수로 우윤근씨와 맞겨루는 ‘기교파 골프파’였다.

사내의 골프세(勢)가 미미했던 동아에서 이춘구(李春九)심의위원이 첫 회원으로, 한국 권혁승(權赫昇)부국장 그리고 신아에서 유승택 사회부장, 홍진태 논설위원, 고광탁(高光鐸) 업무국장 및 박환수 산업부장등이 각각 매스컴회 회원이 되었다.

동아방송 김성열(金聖悅)국장이 가입해 영국에서 익힌 솜씨와 구수한 입담으로 인기를 모았었다.

매달 ‘매스컴 골프투어’

코리아헤럴드(KH) 이덕주(李德柱), 조동원(趙東元) 두 이사에 이어 국제신보 윤호헌(尹浩憲)국장의 가입으로 매스컴회의 몸집은 50명(특별회원 포함)을 넘어 비대증에 걸리게 되면서 고민도 생긴다.

대략 1개 친목골프단체경기에 허용되는 라운드 최장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1시간이면 티오프 간격을 6분으로 잡아 10개팀 40명의 소화분량이다.

그래서 골프장은 어느 친목단체에나 1시간 10개팀 이내를 강요하는데 아무리 매스컴회라 할지라도 어길 수 없는 라인이었다.

‘총 40명 이내’ 규정은 이미 무너지고 60명대 진입을 목전에 둔 매스컴 골프회에 대한 큰 인기와 가입열기를 어찌할 것인가에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모임의 전원이 경기에 참가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전회원의 3분의 1 참가가 보통이고 3분의 2 참가가 최다 출전이므로 가능했다.

이렇듯 매스컴회 경기 출전자 수는 평균 30명선이고 40명선 출전은 몇차례 뿐이었다. 그런 경우도 골프장측의 배려와 협조로 그런대로 치러낼 수 있었던 옛날 골프장 목사(牧歌)시대의 이야기이다.

월례경기는 한양 뉴코리아 산성 태릉 부평 로얄 등 서울 북서부코스 외에 관악 남서울 용인 오산 안양 수원 등 한강 이남코스 등으로 순회개최돼 적이 ‘매스컴 골프투어’라고 불릴 만큼이었다. 그리되기까지는 골프장과 골프장협회(KGBA)의 알뜰한 협조가 지대했음은 물론이었다. <계속>

<자전거 도둑> 정신력을 절제 비유하면 합창

개 개인의 특 한 것이 역(配役)을 놓 다. 이 영화가 시카는 빗더미

명감독 배우 지만 전후 이틀 는 너무 힘겨웠 (콜럼비아社)가 (Shoe Shine·1

영화를 또한번 청에는 대신 그 새 영화의 각

으로 당시 스타 해 달라는 주문 을 구상 중이

격이 아님을 다면 헨리 폰트 이 흥정은 잡

<구두닦이>의 바탕으로 4천만 도둑> 제작에 주인공 안토

지오라니에게 발을 들인 적 공과 형편이 목 한때 조그마

장을 잃은 마 나선 것은 장 아니라 당장의 안토니오의

시카를 인터뷰 리아넬라 카렐 크랭크인 된 을 구경하던 고

출연진 가운데 도둑 역의 빅 시 이름이 알려 데 데시카의

있던 재장 감독 데시카가 듯한 스타가 <자전거 도둑>

무대 추적이라 이 영화 <자전 거리즘(Neo 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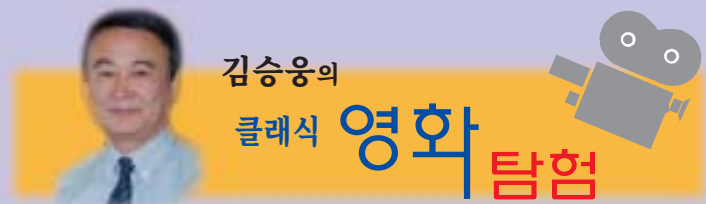
<자전거 도둑> 위치해 있다. 흐른다. 강 좌

걸어 내려오면 다리와 강변 데 자세히 살펴

던 광장임을 안토니오 부 죽어 이 광장에

부자가 광장 금도 들리는 듯 광장 한 편으

여기가 어디 인이 일러준다 하는 노인을 볼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 필자 : 빅뉴스포럼 대표 · 전 한국일보 프랑스특파원

· 빅토리아 데시카의

②

자전거 도둑



· 네오리얼리즘의 명감독 빅토리아 데시카.

<자전거 도둑>은 이탈리아 영화감독 빅토리아 데시카가 정신력을 절제 압축해서 이뤄낸 산물(産物)이다. 음악에 비유하면 합창에 가깝다.

개인의 특출한 성량(聲量)이나 빼어난 가창력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절제와 압축은 주인공 안토니오의 배역(配役)을 놓고 벌어진 실랑이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1948년 당시 감독 빅토리오 데시카는 빗더미에 올라 앉아 있었다.

명감독 배우로 구미(歐美) 영화계를 주름잡던 데시카였지만 전후 이탈리아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을 이겨 내기에는 너무 힘겨웠다. 미국의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셀즈니크(컬럼비아社)가 손을 뻗쳐 왔다. 데시카가 만든 <구두닦이(Shoe Shine · 1946년)>를 보고 반한 셀즈니크는 그 비슷한 영화를 또한번 만들자고 요청해 온 것이다. 셀즈니크의 요청에는 대신 조건이 따랐다.

새 영화의 주역으로는 꼭 미국 배우를 써 줄 것. 구체적으로 당시 스타로서 인기를 얻고 있던 케리 그란트를 기용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 당시 <자전거 도둑>을 구상 중이었던 데시카는 케리 그란트가 적격이 아님을 설명하고 굳이 미국 배우를 쓰겠다면 헨리 폰다를 달라고 제의했다.

이 흥정은 결국 깨졌다. 데시카는 앞서 만든 <구두닦이>의 수입 예상금과 은행 신용융자를 바탕으로 4천만리라를 마련, 자력으로 <자전거 도둑> 제작에 나선다.

주인공 안토니오의 배역은 신인 람베르토 마지오라니에게 돌아갔다. 영화라고는 문턱에도 발을 들인 적이 없는 마지오라니는 극중 주인공과 형편이 똑같은 실업자였다.

한때 조그마한 회사의 배전공으로 일하다 직장을 잃은 마지오라니가 배우 선발 오디션에 나선 것은 장차 배우가 되겠다는 야심에서가 아니라 당장의 끼니를 메우기 위해서였다.

안토니오의 부인 마리아 역(役)엔 언젠가 데시카를 인터뷰 한적이 있는 신문기자 출신의 리아넬라 카렐이 뽑혔다. 브르노 역은 영화가 크랭크인 된 후 로케이션 현장에서 촬영 장면을 구경하던 꼬마 엔조 스타이올라가 발탁됐다.

출연진 가운데 유일한 직업 배우로는 자전거 도둑 역의 빅토리오 안토누치 뿐이지만 그 역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엑스트라 급이었다.

데시카의 이 같은 파격적인 캐스팅을 당시 그가 처해 있던 재정적 난국으로 돌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감독 데시카가 <자전거 도둑>에 기대한 배역은 판에 박은 듯한 스타가 아니었다.

<자전거 도둑>의 제작 현장을 따라가는 기행은 영화의 무대 추적이라기보다는 데시카의 영화 작법, 구체적으로는 이 영화 <자전거 도둑>을 두고 학자들이 이름붙인 네오 리얼리즘(Neo Realism)에의 탐험이 된다.

<자전거 도둑>의 주된 무대는 강(江)이나 수로 연변에 위치해 있다. 로마 시가(市街)의 한 복판을 테베르 강이 흐른다. 강 좌안(左岸)을 따라 강변로 리파그란테를 한참 걸어 내려오면 아벤토니오 다리(橋)에 닿는다.

다리와 강변로가 만나 알맞은 크기의 광장을 형성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이 바로 영화 속에서 비가 쏟아지던 광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안토니오 부자는 추적하던 자전거 도둑을 놓치고 풀이 죽어 이 광장에 도착, 거기서 소나기를 만난다. 생쥐 꼬의 부자가 광장 이곳저곳을 기웃대며 절벽대던 물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광장 한 편으로 서 너 개의 아치가 뿔려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은 즉 "포르타 포르테스!"라고 한 행인이 일러준다. 광장 한 구석에서 자전거 장물야비 노릇을 하는 노인을 발견한 안토니오 부자는 추격전을 펼치며 이

포르테스는 문(門)을 통해 화면에서 사라진다.

9월의 로마는 아직 한증막이다.

안토니오 부자의 추격에 가세하다보니 땅방울이 비오듯 쏟아진다.

포르테스는 문을 빠져나온 즉시 기대할 수 없던 풍경이 나타난다. 행여나 남아있을까 했던 자전거 시장이 보란 듯이 거기 있다.

인적이 뜸하고 자전거 수요에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만 빼면 영화 속의 자전거포(鋪) 장면과 그대로 부합한다. 자전거 가게 앞을 기웃대던 안토니오의 꾀죄죄한 형색이 다시 환영으로 나타난다.

'큰 덩치에 섬약한 눈매, 왠지 슬퍼 보이고 매사에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내향형(內向型) 악골' - 주인공 안토니오는 어찌 보면 오늘의 유럽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전형적인 서민상이다.

안토니오에게 자전거는 그의 인생의 전부를 뜻한다. 천신만고 끝에 구한 직장, 그 직장이라야 미국 영화 광고를



▲ <자전거 도둑>의 극중 주인공 배역은 스타가 아닌 극중 주인공과 형편이 똑같은 실업자로 극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있다.

벽에 붙이는 잡일이었지만 그는 소명(召命)의식과도 같은 기쁨으로 첫 출근을 한다.

부부가 매일 덮고 자는 침대시트를 전당 잡혀 자전거 한대를 빌려 온 그는 모자와 복색도 갖춘 채 아내 앞에서 제법 어깨를 펴다. 아내를 포옹하려 짐짓 덤벼들기도 하는 그 수줍고 어색한 몸짓으로 관객들을 더욱 애절하게 만든다.

1945~46년 당시의 로마 상황, 전후 패전국 수도의 경제적 불황과 직업 난(難)이 어땠는지를 이 자전거 한대가 여실히 보여준다. 첫 출근 첫 작업지에서의 자전거 도난은 이를테면 '삶' 자체의 도난을 뜻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도구로 쓴 데시카 특유의 영화 작법에 대해 데시카의 콤비이자 극의 각색을 맡은 체자레 자바티니는 이렇게 거든다.

"자전거 한대를 도둑맞았다 해서 뭘 그리 설치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사실 그 당시 로마시의 자전거 대수는 시중에 날아다니는 파리의 수효 만큼 많았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대의 자전거 도난이 있었고, 이 도난은 단 한 줄의 기사로도 신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토니오의 경우는 다르다. 그가 당한 자전거 도난은 적어도 여섯 줄 이상의 기사가 되어 신문에 게재됐어야 마땅했다. 자전거는 그에게 생존 그 자체를 뜻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관객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장면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군중(群衆)이다.

네오리얼리즘의 무대

지금 서울과 너무 닮아

주인공 안토니오는

‘현대의 비극적 영웅’

이 영화를 보는

우리 모두가

‘자전거 도둑’...

파업을 꾀하는 공산당원, 안토니오를 따라 자전거 수색에 동참하는 청소원 집단, 젊은 자전거 도둑을 두둔하는 동네 주민, 교회 급식(給食)을 기다리는 빈민대열, 축구 인파, 출퇴근 집단...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영화 탐험 당시는 못 느꼈지만 취재 노트를 뒤적이며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지금의 서울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군중은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등장한다.

술한 실업자 대열, 그 속의 일원으로 클로즈업되는 주인공 안토니오.

그 안토니오를 보는 관객들의 시각은 시종 군중과의 연계(連繫)개념에 매여있다.

주인공이 막판에 남의 자전거를 훔친 후 군중들로부터 구타를 당할 때 관객들이 그의 도덕성을 접어둔 채 용서하고 이해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연계개념 때문이다.

영화가 끝날 무렵 안토니오는 아들 브르노의 손을 움켜쥔 채 군중속에 다시 합류, 원적(原籍)을 찾는다. 안토니오는 바로 군중의 한 분신이다.

데시카와 그의 <자전거 도둑>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조엘 카노프 교수의 주요 관심사도 바로 이 군중의 등장이다. 그는 안토니오를 '현대의 비극적인 영웅'으로 평한다. 그의 연구 논문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있다.

"데시카가 이 영화에서 제시하려 시도한 점은 한 개인과 다중(多衆)간의 관계였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군중들은 영화의 상징적인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성품의 상한(上限)과 하한을 극명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다. 영화 속의 군중들은 '희랍적 합창(greek chorus)'의 현대적 표현이다"

교수는 이어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제목은 오역(誤譯)이며, 원제(原題) <Ladri di biciclette>대로 단수가 아닌 복수 <자전거 도둑들>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가 자전거 도둑의 공범자가 된다.

루이지 바르톨리니의 소설을 자바티니, 데시카 등 7명이 달라붙어 각색했다.

원전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표독하고 거만한 예술가로, 가난한 자에 대해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이다. 그는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기 위해 별도로 또 한대의 자전거를 구입, 악에 바친 추격전을 벌인다.

이 영화는 제작 감독 각색을 데시카가 모두 해치운 작품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영화 <자전거 도둑>에 출연한 배우들을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출연진 모두가 단회(單回) 출연으로 그쳤다. 특히 아역 브르노를 맡았던 스타이올라 군의 행방이 궁금했으나 알 재간이 없다.

출연당시(1948년) 5살이었다면 지금 나이로 64세, 나와 동갑이 된다.

영화와 그 감동은 그대로 남되 주연과 관객들은 모두 바뀐다.

괜히 고집을 부려본다.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60년 가까운 세월의 바뀔은 그 영화의 무대에도 반영돼야 옳을 듯 싶다. 로마 현지 자전거포에 걸렸던 오토바이의 바퀴나 핸들 더미는 <자전거 도둑>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물건들 아닌가! <계속>

www.dvdtv.co.kr

세상을 리모콘하라! 다 되는 TV, DV

이것저것 따로 들지 마세요. 디지털 케이블 TV, DV를 만나면 원하는 즐거움이 다 있으니까요!

지금 TV 그대로
실시간 방송은 기본
최대 170개 채널, 다양한 콘텐츠
최신 영화, 드라마, 농친 TV프로
K1,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음악방송, 영화예매, 게임, 노래방, 피자배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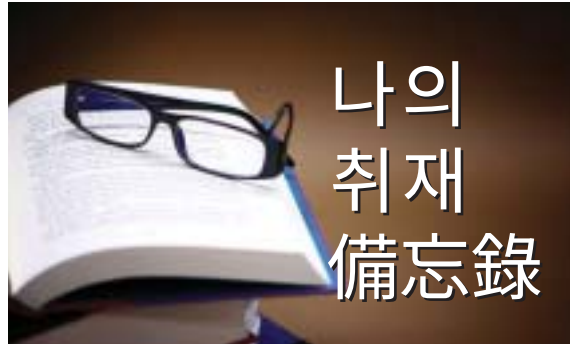


DV
DIGITAL CABLE TV



방송기자의 월남전 종군

(上)



盧永台

- 본회 회우
- 전 KBS 월남특파원
- 전 주일본대사관 공보관



최초의 사투리 방송

월남전의 초기단계인 1966년 7월께 중앙방송국 보도실 정치부 중앙청 담당 기자로 재직하던 어느날 중앙방송국 국장실에서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장실에 들르자 당시 김재연국장(고인)께서 주월 한국군 각부대가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 작전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월남 상주 특파원으로 부임해 평화의 십자군으로서 주월 한국군의 활약상을 상세히 취재하여 국내외에 알리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따라 필자는 곧 부임준비에 들어가 같은해 8월 초 월남에 도착, 본격 취재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주월 특파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솔한 전투 등에 참전하여 취재활동을 했었지만 여기서 그 모두를 소개할수는 없고 몇몇 잊혀지지 않는 취재경험담을 소개



▲ 취재 지원 받은 주월미군 경비행기 앞에서의 필자.

역이 우기 철이라 습도많은 자욱한 안개속에 처절한 장면이 눈앞에 전개되어 있었다.

9중대 방어철책을 기어오르다 피살된 월맹군, 삽으로 땅을 파는 모습 그대로 사망한 월맹군, 하반신은 사체이고 상반신은 아직 생존한 적 병사, 울창한 정글속으로 도주하다 사망한 사체들, 그야말로 지옥의 전투현장이었다.

이 전투에서 아군의 피해도 있었는데 모두 11명의 병사가 장렬히 전사 하였다.

채명신 사령관은 전투현장을 둘러본 후 9중대 중대원 전원이 도열한 가운데 중대원들의 혁혁한 전투공헌을 치하하고 병사에서 중사까지의 중대원들에게 바로 이시각부터 1계급 특진함을 군사령관으로서 명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후에 결정되었지만 전투에

雨期 야간전투... 처절한 장면 눈앞에 전개

하고자 한다.

당시 KBS 주월특파원은 라디오중심 취재보도를 했는데 KBS제1방송의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특파원 수첩' 프로가 있었으며 당시만해도 해외특파원으로는 주월 특파원이 유일한 특파원으로 매주 이 프로를 전담, 제작하여 테이프를 보내 방송했으며 그밖의 월남소식은 KBS제1방송, 제2방송, 대북방송, 국제방송의 각 뉴스 시간을 통해 전달했다.

월남 현지에서 제작되는 방송물은 전투현장에 종군, 전세를 중계녹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필자는 원래 부산출신으로 경상도 사투리가 심한 편이었다.

당시 KBS 방송과장은 아나운서로 유명한 장기범씨였고 그분은 방송에 있어서 서울 표준어 이외 사투리 방송은 일체 있을수 없음을 주장하는 분이였다.

그러나 월남전 현지녹음 취재방송은 이분으로서도 막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결국 필자가 공영방송에서 지방사투리로 방송을 한 최초의 인물이 된 영광을 안고있다.

특파원수첩 프로 구성은 주월장병의 활동현장에 종군, 녹음위주의 프로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취재기자의 운명은 우리병사들과 같이 하였기에 취재과정의 위험성은 실로 컸었다고 회상된다.

베트남 침투 루트 '두꼬 예'

두꼬는 캄보디아와 월남 접경지에 있는 지명으로 이 접경지를 통해 월맹정규군 및 베트남이 캄보디아로부터 월남으로 침투하는 주 루트였다.

당시 맹호사단장 겸 주월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은 이 루트를 봉쇄하기 위해 맹호사단 기갑연대의 9중대를 두



▲ 디안 주둔 비둘기부대에서 정훈참모(왼쪽), 공보부 사진기사(가운데)와 함께.

꼬에 진주시켰다.

진주시키면서 중대진지를 완벽히 구축하고 크레모아 방어포발장치를 3중 4중으로 설치하고 당시 일컬어졌던 '깔아뭇개는 식'의 고정되고 빈틈없는 진지구축을 했던 것이다.

당시 장병들의 얘기로는 이와같은 진지구축하에서는 적 사단급의 공격에도 견딜수 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1966년 8월 9일 밤 11시께 공산월맹 정규군 2개연대가 9중대를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을 감행해왔다.

전투는 밤 11시부터 익일새벽 4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9중대 장병들은 적 사살확인 184여구, 수백명에

현장취재 몰두하다
귀환 헬리콥터 놓쳐
군부대 지원 받아
밤새워 돌아와 보니
베트공 지역
여러 곳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게 부상을 입히는 큰 전과를 이루었다.

필자는 전투가 발생한 이날 취재차 맹호부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익일 새벽 2시께 맹호사단 정훈참모 민용기 중령이 기자들 숙소로 찾아와 전투발발 소식을 전하면서 기자들 중 풀기자로 3명의 헬리콥터 좌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채명신 사령관과 함께

채명신 사령관과 동승하게되는 이 헬리콥터에 한국일보 이문희 특파원, 경향신문 김은구 특파원 그리고 필자가 탑승, 전투현장으로 향했다.

새벽 4시 30분께 현장에 도착, 공중에서 내려다 본 전투현장은 당시 이지

참전한 9중대장 김진규 대위에게 을지무공훈장, 중대 선임하사 김상사에게 태극무공훈장, 그리고 많은 장병들이 무공훈장을 받았다.

큰 전과 올린 '한국군 작전'

우리는 두꼬전투가 단순한 전투 뿐만 아니라 이전투를 계기로 주월미군과 한국군 간의 오랫동안 존재했던 작전 개념의 큰 차이가 해소된 기회가 되었음을 알수있게 된다.

당시 주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얼랜드 대장은 월남전의 작전개념을 충분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으로 적시에 공격하고 적시에 피하는 작전으로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전술이었으며 주월한국군의 작전도 자신의 전략전술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반면에 채명신 사령관은 앞에서의 9중대 전술내용과 같이 완벽한 방어태세와 깔아뭇개는 식의 진지를 구축해 적을 유인, 섬멸하는 전술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주월미군과의 작전개념상 알력이 있어왔는데 바로 두꼬전투를 계기로 웨스트모얼랜드 장군은 주월한국군의 전략전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월미군 작전장교들을 맹호부대에 파견, 한국군의 전략전술을 교육토록 하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필자는 전투현장 스케치 취재와 참호속에서 장병들과 인터뷰하는 등 취재에 몰두하다 채사령관 헬리콥터가 이륙, 탑승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경향신문 금은구 특파원과 함께 인근부대 지프, 경비행기 등의 지원을 받아 밤을 새워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 우리의 귀로가 베트남 지배지역 수십여 곳을 거쳐왔음을 알고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었다.

<계속>

클릭! 이 한마디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

미 대선주자들의 '검증'

... 미국에선 후보들끼리만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도 문제를 제기한다. 주요 일간지들은 검증문제 전문 기사를 따로 두기도 한다. 검증과정은 “아니, 이런 것까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근 한 기자는 오바마가 대학원 다닐 때 안 냈던 주차위반 벌금을 출마 결심 후 한꺼번에 낸 사실을 밝혀냈다. 한 방송기자는 롬니 전 주지사에게 공개적으로 “결혼 전에 부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부 기자들끼리도 “대통령이 되려면 늦어도 다섯 살 때는 결심을 해야 한다”는 농담을 한다. 사생활까지 깊이 파헤치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관리를 하기 전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미국에선 검증의 도마에 오르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다. 남이 묻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리더십 책을 쓰면서, 복잡한 결혼에 얽힌 사연을 미리 밝혔다. 9·11 테러 때 부인과 자식들은 물론, 애인이 안전한지도 챙겼다고 고백했다. 오바마도 학창시절 마약 복용 사실을 자서전에 먼저 공개해 버렸다. 솔직함과 용기를 높이 사는 미국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검증대상이 될만한 내용은 스스로 공개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강 인 선 (논설위원)

• 조선일보 6월 20일 ‘동서남북’에서

‘요덕 스토리’ 그 뒤

북한 주민들의 피와 눈물로 권좌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김정일과 제대로 ‘맞짱’ 한번 뜨고 싶은 투쟁의 각오로 만든 뮤지컬 ‘요덕스토리’는 결코 진리와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공연 105회, 미국 워싱턴·뉴욕·로스앤젤레스 투어 공연 10회! 국내 유수 언론들과 워싱턴포스트 및 월스트리트저널, LA타임스, CNN, ABC와 그 밖에 미주 한인 언론사들의 절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 관람객 15만명에 육박한 뮤지컬 ‘요덕스토리’.

그 초기의 계획은 실현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좌절하지는 않았다. 내가 아니면 누구든 해야 할 사명감과도 같은 일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국 공연을 사고 없이 마무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다.

미국 공연 후 투자를 하겠다던 회사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 둘 투자를 보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약속을 믿고 사채까지 썼는데, 그들을 믿고 약혼자의 결혼 적금까지 해약했는데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유는 하나같이 현 정권의 눈치였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돈을 쥐가면서 해도 시원치 않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작품이 외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 성 산 (뮤지컬 감독)

• 문화일보 6월 16일 ‘살며 생각하며’에서

法 비웃는 대통령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권력 행사자인 대통령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만이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본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그 기본 틀을 만드는 항구적 규범인 헌법은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권력을 행사할 뿐인 객체에 불과한 대통령이 함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며,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이 헌법을 ‘그놈’이라고 능멸하는 한 한국 입헌주의의 미래는 없다. 노 대통령은 헌법이 정치권력의 그림자가 아니라 권력이 따라야 할 규범임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깨달아야 한다.

강 경 근 (숭실대 교수·헌법학)

• 동아일보 6월 9일 ‘시론’에서

· 弔 辭

한술밥 먹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종호형! 형의 부음소식을 접하고 새로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30년 가까이 언론계에서 한술밥을 먹으며 한세월을 보냈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불귀의 객이 됐다고 생각하니 망연한 감회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혼돈의 시기에 언론계에서 외길만을 걸은 이종호 형이 말년에 요양시설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떠나시다니 애통한 마음 또한 금할길 없습니다. 삼가 형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한 세대를 풍미한 형의 족적은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후배를 아끼고 항상 성실한 성품을 생활철칙으로 삼아온 형의 일상은 우리들의 귀감이었습니다.

1955년 시사통신사에 입사한 종호 형은 언론의 격동기인 1980년대까지 25년간 한 직장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81년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6개의 통신사가 연합통신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종호형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당시 특수 통신인 시사통신은 본편 3편과 특수 산업편 12편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종호형이 담당한 광공편은 석탄산업을 비롯해 시멘트, 제철, 제강, 비금속광,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정보지로 업계의 인기를 독차지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통신이 전해주는 귀중

李鍾鎬 형
영전에

한 정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종호 형의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직업의식이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후의 건강관리도 남달리 투철한 형의 생전의 모습은 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덧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서 우리는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희수를 넘기면서 겪은 영욕과 고뇌는 찰나에 불과한 짧은 시간임을 실감케 합니다. 형의 나이가 8순을 바라보는 희수를 누렸으니 아쉽지만

이제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여한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형을 떠나보내며 아쉬움과 그리움이 우리들 마음속에 점철되지만, 우리들의 삶 또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할 인고의 세월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호 형!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훗날 저승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형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이 글에 담아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망자의 미망인 유희준 여사와 두 딸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07년 6월 13일 박문송

言論街

기협 부회장 사퇴 ‘후폭풍’

노대통령과 TV토론 파장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 간의 6월 17일 텔레비전 생방송 토론회와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내용을 겪고 있다. 정일용 회장이 기자협회 내부의 ‘토론회’ 의견을 묵살하고 토론회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정 회장의 평양 방문시 토론회 참석연기 의견을 모았던 김경호 수석부회장은 결의 내용이 거부되자 사퇴했다. 서울지역 지회장들과 시도협회장들도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전담할 비상대책위를 설치, 전권을 위임할 것을 정 회장에게 요구했다.

기자협회의 이 같은 혼란은 지난 6월 8일 한국언론재단이 토론회 주최 사실을 공표한 후부터 계속됐다. 토론회 참석을 거부했던 기자협회는 13일 청와대와의 비공식 접촉 직후 토론회 참석을 수용했다. 청와대측은 이 자리에서 정보공개법 개선을 위한 해외실태 조사단 구성과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논의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우업체 탐방

전문외교 영문월간지 <Diplomacy> 회장 林 德 圭 회우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을 30년 넘게 꾸준히 해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오늘의 <Diplomacy>를 세계적인 전문외교 영문월간지로 키워낸 임덕규(林德圭) 회우 역시 아래 자작시(詩)처럼 지난 33년 동안 ‘한반도 통일’을 꿈꾸면서 지구를 수없이 돌며 힘든 길을 걸어 온 분이다.

관직없는 ‘민간 외교관’

국내에 변변한 영어잡지 하나 없던 시절, 1970년대에 영문잡지를 창간해, 그 동안 수많은 외국의 대통령과 왕, 수상 등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교분을 쌓은 임덕규 회우, 한국과 외국과의 징검다리 구실을 하며 정부끼리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풀도록 훈수하는 등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서울 무교동 삼덕빌딩 9층 <디플로머시> 회장실에는 그가 33년 동안 만난 세계 지도자들의 사진이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한다. 장쩌민, 빌리 브란트, 존 메이저, 피에르 트뤼도, 인디라 간디, 라빈, 고르바초프, 카스트로, 코피 아난...

임 회우는 외국 지도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6개 대륙을 여행했고 또 외국의 지도자들이 방한하면 서울에서 만나곤 했다. 그들을 만나면 코리아를 홍보하기에 바빴다.

이 같은 그의 많은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 한국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끝내는 반기문 장관을 UN사무총장으로 당선시키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훌륭한 리더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후원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UN사무총장 당선으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했던 반기문 총장 뒤에는 그를 전적으로 지지해주었던 임덕규 회우가 있었다. 임 회우와 반 총장과의 인연은 지난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회우는 한국-인도 친선협회 간사를, 반 총장은 인도 대사관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인도 관련 업무 때문에 만난 것이다. 그 이후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더욱 친숙해졌다. 능력에 인품도 갖췄지만 반 총장이 참여정부의 외무장관이 된 것도 임 회우의 숨은 힘이 작용했다.

林炳稷 선생 영향 받아

임 회우 머릿속에는 3년 전 쯤부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만들기’가 시작됐다. 그는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간 친분이 두터웠던 대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모임)활동을 펼쳤다. 이후 반사모들은 자국의 유엔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도록 적극 도왔다. 이처럼 임덕규 회우가 각국의 대사들에게 반기문 총장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3년간 <디플로머시> 잡지를 출간하며 그 나라 국가원수들을 만나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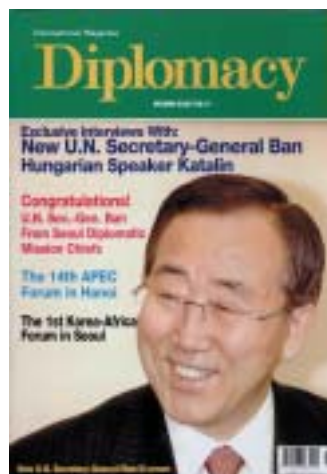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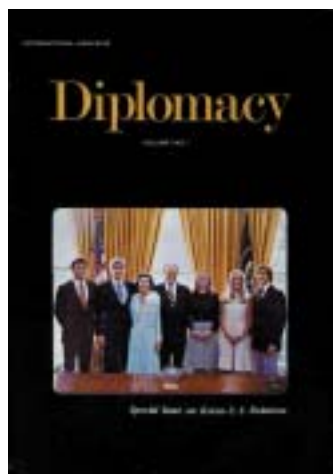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임 회우가 영문외교 월간지 <디플로머시>를 발간하게 된 것일까?

1963년부터 그는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독립운동을 했던 임병직(林炳稷·제2대 외무장관) 선생을 개인적으로 보좌하게 된다.



▲ 관직없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디플로머시> 회장 임덕규 회우.

33년 동안 300여명 외국 頂上 만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 ‘일등공신’



▲ <디플로머시> 창간호(왼쪽)와 최근호.

지구를 돌면서

임 덕 규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네
시속 1,700km로 자전을 하고
시속 108,000km로 공전을 하면서,

나도 이 지구위에 선채로 같이 돌며
임어당(林語堂) 박사를 만나 ‘유머는 인생의 윤활유’이며
토인비 교수를 만나 ‘효(孝)사상은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고
또 로물로 장군을 만나 ‘외교(外交)는 친교(親交)라는 말을 들었네.

그리고 독일의 브란트 수상을 만나 ‘통일의 지혜’를 얻으며
중국 장쩌민 주석을 만나 ‘조국의 평화통일’을 논(論)하고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
‘정치는 대화합(大和合)이 최선(最善)임을 깨우쳤네

지구를 수없이 돌고 돌면서
위인(偉人)들의 지혜를 접할 수 있었던 나,
그 고마움에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언젠가 우리조국의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
나는 또다시 인류의 위인들을 찾아
“통일만세!”를 외치며
희열(喜悅)에 넘치는 만족한 미소를 지을 날이 오기를!

임 선생이 어느 날 그에게 “영어잡지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을 설득하면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외교라면 대미외교뿐이었던 시절이다.

그는 이때부터 영어잡지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영어통인 이규현(전 문공부장관)씨 등 주변에서는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궁리 끝에 전화 값이 굉장히 비쌌던 때라 전화를 잡히고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한 뒤 무교동에 조그마한 7평짜리 방하나를 빌려 1975년 8월 <디플로머시> 창간호를 낸다. ‘장점 따라 3만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도자의 업적과 장점만을 기사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런 편집방침에 따라 몇 호가 나가자 대사관과 해당국 공보실에서 <디플로머시>를 우호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제일 먼 나라를 제일 가깝게”

창간호의 커비스토리는 한·미관계. 표지 인물로 백악관의 포드 미국 대통령 가족사진을 싣고 성조기 변천사, 역대 대통령 친필서명, 역대 주한미국대사, 하비브 대사 화보집 등으로 특집을 꾸몄다. 권두에는 ‘사해합류(四海合流)’라는 글씨와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울국 선생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창간호 이후 <디플로머시>는 표지인물로 33년 동안 대통령, 왕, 총리 389명을 표지인물로 내세웠다. 임 회우는 “세계 잡지 역사에서 왕, 수상, 대통령 만을 커비스토리로 다룬 것은 <디플로머시>가 유일하다”고 말한다. 그가 직접 인터뷰한 인물만 300여명이 된다.

그 300여명이나 되는 국가 원수 중에서 인상적이라까, 기억에 남는 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남북한 대화의 가교역할을 해준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주석을 꼽는다. 특히 부테플리카 대통령과의 만남은 ‘제일 먼 나라를 제일 가깝게 만든 외교의 기적’(박동진 전 외무장관의 말)을 이뤘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父子)와 아주 가까운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의 방한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현재 <디플로머시> 해외 네트워크로 편집 고문이 500여명이나 있다. 그들은 당연히 친한파.

이젠 ‘Look korea policy!’

70년대만 해도 아직 대한민국을 모르는 세계인들에게 코리아를 홍보하기에 바빴지만 88올림픽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꿈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됐다는 그는 변화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누구보다 가까이 실감하고 있다. “Look korea policy! 지금은 170여국들이 한국을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 괜히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이런 국위선양을 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과 자꾸 친하게 만들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임 회우야말로 진정한 ‘통일꾼’이 아닐까. 사람 만나는 게 유일한 취미로 휴일 없이 뛰는 임 회우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筆田>



클로즈업

이색 동인지 '뷰스 레터' <부싯돌>을 보셨습니까?

‘부싯돌’을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부싯돌(Fire stone)은 질이 단단하여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차돌이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 라이터의 ‘조상’. 이젠 박물관에나 가면 볼 수 있을까.

그 부싯돌을 말하는게 아니다. 문학과 철학의 만남을 표방하며 나오고 있는 이색 동인지 뷰스 레터(Views letter) ‘문학·철학 편지’ <부싯돌>을 소개하려 한다. <사진>

“문학과 철학은 만나야 한다. 그러



자면 문학과 철학을 연결할 간이 우편소 같은 의사소통의 샛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같은 화두로 김용구(金容九·사진) 회우가 펴내는 계간 <부싯돌>은 작지만 열린마당이다. 뜻있는 사람들끼리 회원제로 요즘은 봄가을 1년에 두 번 비매품으로 발행하여 회원·필자 등이 돌려보고 있다. 올 봄호(통권 38호)를 보면 A4형 크기

에 16쪽으로 스타일은 심플해도 필진은 사계의 권위자들로 내용이 격조가 있다.

역사를 캐보니까 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회우가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당시 주필이었던 석천(昔泉) 오종식(吳宗植) 선생과 함께 <춘추>(春秋)라는 책자를 낸 게 효시. 그 뒤 쉬었다가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은퇴한 논객’들의 글마당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란다. (02-534-3082)

올가을 대토론회 주제

‘대통령 선거와 언론 보도자세’

본회는 올가을 제18회 대토론회를 오는 10월 4일(목) 오후 2~5시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주제는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자세’로 정했다.

경향사우회 07 정기총회

경향신문 사우회는 6월 21일 정오 북한산성 입구(매미골) ‘너와 나의 산장’에서 지용우 경향사우회 회장을 비롯, 김경래 경향사우회 명예회장, 고영재 경향신문사 사장 등 100여명의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가졌다. <사진>



요즘...



회우동정

· 이태교(李太敎) 회우(서울부동산포럼 회장·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6월 15일 오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서울의 도시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정

기세미나를 개최.

· 김 화(金和) 회우(본회 논설위원·영화평론가)= 지난 5월 30일~6월 7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개최된 제44회 대중상영화제 특별회고전 ‘불멸의 영화인’ (감독 정진우 배우 신영균) 작품 상영에 앞서 해설을 했다.

· 박기정(朴紀正) 회우(전남일보 사장)= 6월 7~13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절강일보, 인민일보와 상호발전을 위해 관계자들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김승호(金承鎬) 회우= 본회 김광섭 고문이 외롭게 요양하고 있는 수원 유료노인시설을 지난 달 찾아가 위로. 많은 회우들의 방문을 바란다며 본회에 주소를 알려왔다.

효행노인전문요양원(수원시 장안구 조

· 원로 회우 근황

오찬초대·감사편지 보내

· 이동욱(李東旭) 명예회원(전 동아일보 회장)= 지난 5월 30일 낮 제재형 회장을 오찬에 초대, 대한언론인회 30년사 편찬사업을 격려했다. 이 자리엔 이해복 상임고문, 신우식 고문, 이정석 명예회장이 동석했다.

· 김광섭(金光涉) 고문(전 합동통신 부사장·본회 5·6대 회장)= 올해 96세의 고령으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22-4, 성지원 B동 201호에서 요양 중 본회 창립 30주년 기념일(4월 25일)에 드린 ‘창립 공로패’를 전달받고 6월 13일 제재형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회장님께. 언론인회를 위해서 분투하시는 모습, 회보를 통해 잘 알고, 제 미력이나마 보태 드리지 못함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터에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공로패까지 만들어 주신데, 고마운 마음 겨우 이제야 글월로 표시하오니 너그러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닥내에 모든 분들이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美 ‘松巖武道門’ 준공식 참석

· 강승훈(姜勝勳) 회우(본회 부회장)= 6월 21일 미국 남부 아칸소 주의 주도(州都) 리틀록시에 세워지는 한국전통 대문 ‘송암무도문(松巖武道門)’(폭 8m 높이 7m·사진)준공식에 참석했다.

♡ 회우자녀 코너

21C ‘나노光子시대’ 이끄는 諸元鎬 교수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21세기는 ‘나노기술(NT)의 시대’, 혹은 ‘광자(光子)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분야가 나노광학분야. 제재형 회장의 둘째 아들 서울대 물리학과와 제원호(諸元鎬·48·사진)교수는 나노광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제 교수가 세계 최초로 나노기술보다 한결 정교한 나노 액체 연구를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나노 영역에서의 액체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지금까지는 고체물질(도체, 반도체, 부도체)에 한정돼 왔다. 나노액체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 본격 시작하게 된 것은 제 교수가 ‘나노힘

나노광학분야 세계적 권위자 최초 ‘나노액체 연구’에 주목

·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노액체 연구’에 도전하는 제원호 교수(왼쪽)



현미경’(scanning force microscope)이란 장비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 현미경을 통하면 자연·생명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기술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 교수는 밝혔다.

참고로 20세기에는 마이크로(1미터를 백만분의 1로 나눈 크기)이 소자(素子)의 단위였다면 21세기에는 그보다 천 배나 작은 나노(10억분의 1)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원호 교수는 서울대와 미 예일대학교 물리학박사로서 5월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나노액체연구단 단장이며, 지난해 제51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했다.

원동 122-4 ☎ 031-258-7715, 김광섭 고문 031-257-3587).



해외 나들이

· 윤주영(尹胄榮) 자문위원(전 문공부

장관) : 사진작가로 사진에 심취하여 카메라 하나 들고 6월 19일 출국, 프랑스의 고궁과 문물, 정원 등을 필름에 담고 7월 11일 귀국 예정.

· 박 실(朴實) 회우(본회 이사) : 세계저서문화회의 초청으로 6월 28일~7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연해주 일대의 발해유적 및 항일유적지역 역사탐방.

· 여영무(呂永茂)회우(뉴스엔피플 대표)= 6월 5~19일 보름동안 미국 LA의 친지 방문.

알림

대한언론인회 30년사 원고 마감합니다

- 내용

- 대한언론인회 30년사 간행에 붙이는 30자 발언
- ‘대한언론인회와 나’ 또는 ‘대한언론인회를 생각하다’
- 최종마감 : 7월 10일



농촌이 웃는 나라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촌이라는 말 속에 오늘이 있습니다
농협이란 말 속에 내일이 있습니다
더 잘 사는 농촌, 희망으로 가득찬 우리 농촌을 위해
대한민국 농협이 믿음직한 힘이 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이용으로 생긴 수익은
농업·농촌을 위해 쓰입니다**

Human Bank, Human Life



대한생명(표4)